마음과 성품 다르지 않아야 祖師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4⟩



범어사 주지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특별한 일을 논하지 않으셨다. 오직 일심(一心)만을 말했으며, 또한 일승(一乘)만을 말하셨다.

불조께선 오로지 근본실상만을 드러냈다. '일승'을 《법화경》 '방편품'에선 '일불승'이라고도 했다.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한다는 견지에서, 그 구제하는 교법은 오직 절대 진실한 하나뿐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시방을 두루 살펴보아도 다시 다른 승(乘)이 없나니,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대중들은 열가지와 잎이 아니라 모두 잘 익은 열매들뿐이로다.'고 말씀하셨다.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제자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함께 할 때, 안목 없는 사람들은 다 나가떨어졌다는 '일불승'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도 깨달은 눈으로 살펴야 그 본뜻과 계합하지, 범부의 안목으로 무조건 "법화경이 일불승이니까 최고다!" 하고 빠져서도 안 된다. 알음알이로는 아무리 완벽하게 이치를 밝혔다 하더라도, 임제가 얘기하는 3구 법문에 지나지 않는다. 3구 법문에서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제도 못한다고 했다. 2구에서 깨달으면 인천의 스승이 될 만하지만, 그래도 결국 1구를 깨달아야지 불조를 능가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힘을 가져야 비로소 일불승의 참뜻과 계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뜻은 쉽게 믿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치를 가져서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깨달음에 눈 떠서 실상을 믿을 수 있는 위신력을 지녔을 때, 비로소 믿고 말고 할 것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달마대사가 이 땅에 오셔서 양(梁)·위(魏) 두 나라에 머물렀다. 오직 혜가(慧可)스님 한 분만이 자기 마음을 묵묵히 믿고, 말끝에 문득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달았다.

남인도 출신으로 중국에 건너와서 선종의 초조(初祖)가 되신 달마대사는 혜가(487~593)가 찾아오자, '안심법문'을 통해 심안을 열어주었다. 달마대사로부터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는 말을 들은 혜가는 선종 2조가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법을 후대에 전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없음을 이름 하여 대도(大道)라고 한다.

도는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다. 그것을 억지로 이름 하여 도라고 명명했을 뿐이다. 그 입장에서 비롯되어진 모든 것은 다 그림자다.

'마음이 곧 성품이다'는 말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줄인말
조사는 당당한 자유인 活祖

달마대사 '안심법문'으로
혜가의 심안 열어주고
"너는 나의 골수 얻었다"인가

마음은 경계 따라 나투니
나투는 곳마다 흔적이 없다
흐름따라 성품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유·무'를 초월하면
'제도'라는 말조차 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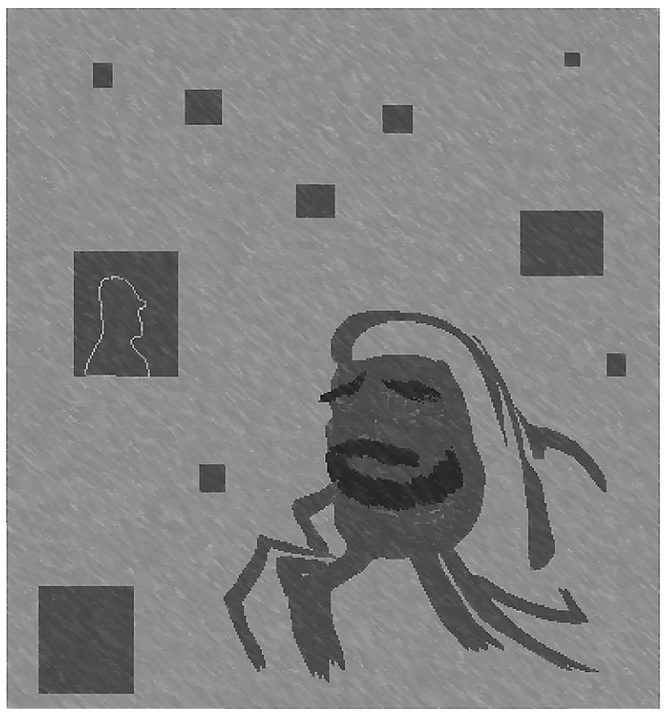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대도는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하나의 참 성품으로 같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한다.

본래 평등이란 상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절대 평등을 말한다. 과거 · 현재 · 미래에 관계없이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쓰는 그 입장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체 중생은 성품 하나로 반연되어서 나타난 결과이다. 성품을 여의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변화한 그림자는 그렇다고 하고, 변화하기 이전의 실상자리, 그 성품은 둘이 있을 수 없다. 그 둘 아닌 성품을 우리는 깊이 믿어야 된다. 둘 아닌 성품을 완벽하게 자각한 그런 입장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을 이름 하여 믿음이라고 한다. 그런 것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다. 달마대사는 《이입사행론》에서, "이입(理入)이란 모든 생명체의 동일 진성(眞性)을 깊이 믿는 것이며, 이 진성이 번뇌에 가려져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고 말했다.

마음과 성품이 본래 다르지 않나니, 성품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 성품과 다르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 조사(祖師)라고 한다.

'성품이 곧 마음이다[即性即心]'는 말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줄인 것이다.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게 하는 것이 선종의 기본입장으로, 당장 마음이 성품과 다름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사가 되는 것이다. 이 조사는 '활조(活祖)'로서, 지금 이 자리에 활발히 살아서 당당한 자유인이다. 임제는 "그대들의 마음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을 일러 활조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심성(心性)을 깨달았을 때, 겨우 불가사의라고 말할까.'라고 하였다."

이것은 서천(西天)의 제23조 학륵나 존자의 전법게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심성을 깨달았을 때
겨우 불가사의라고 말할까
얻을 수 없음을 투철히 깨달으니
얻은 게 있다면 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학륵나 존자의 스승인 제22조 마라나 존자의 전법게도 유명하다.

마음은 만 가지 경계 따라 나투나니
나투는 곳마다 흔적이 없다
흐름을 따라서 성품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5. 모양 있는 것은 허망하다

배휴가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형상을 나툰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을 가지고 있는 인연 있는 사람들을 제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상을 여읜 입장에서는 제도한 바 없이 제도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유 · 무를 초월하면, 제도하니 마니 하는 말조차 허물이 된다.

"진실로 여래께서 제도할 중생은 없다.

황벽선사는 완전히 핵심을 바로 쳐서 드러냈다. 《금강경》의 말씀과 같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⑧⓪



피곤해 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화엄경⟩

끝이 없는 대륙

"중국에 가보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사들이 한 여섯시간 정도는 쉬지도 않고 달리더라." 중국에서 온 유학생에게 한 말이다. 워낙 땅이 넓은 터라, 생긴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2시간에 한번은 쉬어야 한다는 법도 있지만, 여섯시간 씩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만큼 땅이 넓은 것도 아니다.

중국의 경우는 그런 법이 없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소라도 그 땅의 크기가 거기에 미친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땅의 크기(자연, 환경)가 인간의 사고나 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는 인정하는 편이다. 거기에는 또다른 경험이 그 배경에 있다.

인도는 중국 버금가는 큰 나라다. 기차를 타고 하루 24시간 정도는 쉽게 간다. 기차에서 밥을 먹고, 잠도 잔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면, "지겨워서 어떻게 가나" 싶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냥 타고 다녔다. 땅의 크기에 적응이 된 덕분이리라.

그런 인도여행을 하고 온 어느 해, 나는 서울역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간 일이 있었다. 3시간 남짓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겨워 지는 것 아닌가. 그때 나는 깨달았다. 땅의 크기가 사람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말이다.

⟨화엄경⟩은 중국이나 인도처럼 큰 나라다. 일단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10번은 한다. 지금 전해오는 ⟨화엄경⟩만 해도 '60권'이니 '80권'이니,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읽기가 쉽지는 않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키워주는 경전이기도 하다. 그것이야말로 ⟨화엄경⟩의 특징이리라. 예를 들면, "중생을 교화하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은 대승경전이 있을까? 그렇지만 ⟨화엄경⟩만큼 집요하게, 폭넓게, 지속적으로 역설하는 경전은 달리 없다. ⟨화엄경⟩이 넓고 커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넓은 땅에 익숙하다보면 "피곤해 하거나 싫어하지 않게"된다. 우리가 자주 "피곤하다"거나 "싫다"는 말을 하면서, 후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식의 땅)이 그렇게 넓지 못해서이다.

훈련, 이라는 말

'훈련'이라는 말을 만났다. 걸음을 멈추었다. 훈련, 이라는 말은 흔히 군대용어나 직업상의 말로 쓰이기 때문이다.

'중생을 훈련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 앞에 '중생을 교화하다'라는 말을 해놓고서도, 다시 '중생을 훈련하다'라는 말을 더 보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나는 ⟨화엄경⟩ 원문을 확인해 보고 싶어진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어로 번역된 ⟨화엄경⟩을 읽고 있을 뿐, 한문 ⟨화엄경⟩도 범어 원문(입법계품의 말씀이므로 범어 원문 역시 남아있다)도 모두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자가 원문에 없는 '훈련'이라는 말을 더 추가하였을까? 그럴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일본학자들의 번역 태도도 그렇지만, 이미 '교화'가 있는 터에 '훈련'을 추가하는 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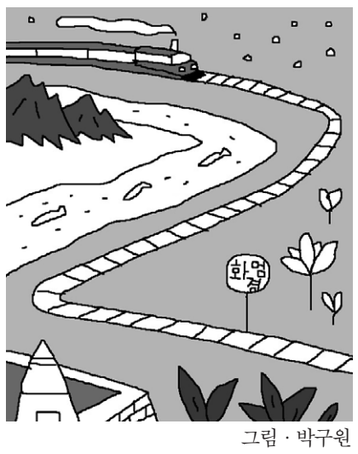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는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문에도 이미 '훈련'이라는 말이 있었다면, '교화'와 '훈련'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교화'는 중생들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것이고, '훈련'은 다시 그 중생이 다른 중생의 깨달음을 위하여 역할을 하도록 분비시키는 것이 아닐까? 나로서는 그렇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다. 의미의 차이가 없이 동어반복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다. 종래 우리는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만 힘을 기울인 것은 아닐까? 이제는 '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끝없이 이어지는 교화의 연쇄 역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곤해 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을 내지 않는' 보살로 우리 모두 거듭 '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작지만 강한종단!
禪大韓佛教 曹溪宗

새롭게 변화하는 불법시대!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종도를 모십니다.
또 한 새롭게 새로운 종단에서 종도의
단합및사회봉사와 종단 활동에 동참하실
스님을정성다해 모십니다.

입 종 안 내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1장
- 반명함사진 4매 (대가사 수한 사진)
- 승려증,임명장,사찰등록증,지급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
(종무법인) 禪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가입문의: (02) 959-1825
종단사업부: 070-7391-7767

본 종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으며 그 수익금은 종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종도가 잘 되어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공 고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기적을 일으켜 주고있는"
생전예수재기도
이 기도가 자신의 운명과 운세를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7일 마다 한번씩 20분정도 집에서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준비 되어있는 기도문 내용을 방편 앞에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생전예수재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기도로서 자신의 삶이 바뀝니다.

(1)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특히 불치병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3)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주 막히고 진행이 잘안된다.
(4)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5) 결혼후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6)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7) 취업이 잘 안되고, 되어도 좋은 직장이 안된다.
(8) 무슨 시험이든 운이 약하게 작용하여 합격이 어렵다.
(9)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잘 안된다.
(10) 직장에서의 승진이 어렵다.
(11) 앞으로 남은 생의 삶은 정말 새롭게 잘 살아 보고싶다.
(12) 특히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이 기도를 필히하십시오.

이상의 내용에서 몇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본 회에서 무료로 보내드리는 「**생전예수재의 필요성**」책자를 신청하여 읽어 보신 후 마음이 닿으시어 기도 신청을 하시면 바로 집에서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이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 보시고 신도들에게 펼치시고자 하시면 별도로 전화 주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